

“6색6곡, 들을 때마다 감상 포인트 바뀔 것”

타이틀 '아웃사이드' 위로 메시지 넘어진 음악 스펙트럼...킹덤 효과 가장 비투비다운 음악 기대하세요



6인조 그룹 비투비(BTOB, 서은광·이민혁·이창섭·임현식·프니엘·육성재)는 가요계에서 알아주는 '인싸'(인사이드)다. 육성재와 임현식의 군 입대로 멤버 수는 줄었어도 각 멤버들은 남다른 불임성과 감출 수 없는 끼로 중무장해 유닛과 솔로로 꾸준히 활동을 펼치며 연기, 예능, 뮤지컬 등 다양한 무대에 나서고 있다. 아이돌 생태계의 징크스 중 하나인 '마의 7년(표준계약상 전속계약 7년 만료 이후 그룹 해체)'도 가뿐히 이겨낸 이들은 데뷔 동기인 엑소와 줄곧 비교 대상이 되어오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30일 스페셜 앨범을 발표한 그룹 비투비는 내년이면 데뷔 10주년을 맞는 '중견'으로 성장했다. 육성재와 임현식이 군 복무 중이어서 이들은 현재 4인조(프니엘·이창섭·서은광·이민혁, 왼쪽부터)로 활동하고 있다.

그룹에도 이들은 4월 엠넷 경연 프로그램 '킹덤: 레전더리 워'에 출연해 많은 이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졌고, 2012년 데뷔해 내년이면 10년차가 되는, 아이돌 그룹 가운데 제법 중견(?)에 속하는 이들이 후배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다는 우려도 많았다. 어쩌면 '아싸'(아웃사이드)를 자처한 것일지 모른다.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한다"고 말한다. 트렌드를 좇기보다는 "비투비다운 음악"으로 '인싸'임을 보여주자는 역설일까. 타이틀곡도 '아웃사이드'이다. 아웃사이드의 현실적인 고민과 걱정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날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들은 "사실 '킹덤' 출연 이후 유독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해주셨지만, 평소보다 훨씬 많은 공을 들여 연습량도, 앨범 퀄리티도 더 나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타이틀곡

이 '아웃사이드'가 된 것 자체가 '킹덤'의 영향이다. 처음 도전하는 장르이지만, 그 경험이 새로운 것을 보여드리는데 연결고리가 됐다"면서 "데뷔 이후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곡에 꾸준히 도전해 왔다. 하나의 공통점은 음악을 향한 진심이다"고 말했다.

역량도 풍부해졌다. '드리머', '미치고 싶어', '여행', '웨이팅 포 유', '피날레' 등 6곡을 담은 앨범의 크레딧에 모든 멤버의 이름을 올리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다. 역시 '킹덤'의 효과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가 보컬을 강화한 그룹으로 알고 계시는데, 무대를 꾸미면서 프로의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또 새로운 도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꼭마다 비슷한 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날 그 시간 그 날씨, 듣는 분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감상 포인트가 바뀔 것이라고 자신해요. 이번 앨범 (멤버)참여율이 높아 그만큼 책임감도 느껴요. 열정에는 끝이 없죠. 꿈, 힐링, 공감, 딱 세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정은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이민호-모모랜드 출신 연우 '열애설' 부인



이민호 연우

배우 이민호와 그룹 모모랜드 출신 연우가 '열애설'에 휩싸인 뒤 이를 부인했다. 30일 두 사람이 "5개월째 교제 중이며, 함께 심야영화를 관람하는 등 만나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민호의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 측은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일 뿐이다"면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 관람도 "다른 지인들과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이민호는 애플TV '파친코' 촬영을 마치고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연우는 2016년 모모랜드 멤버로 데뷔한 뒤 연기자로 전향, 9월22일부터 KBS 2TV 드라마 '달리와 감자탕'을 선보인다.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 SNS 뒷광고 논란 사과



이현주

걸그룹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가 SNS 뒷광고 논란에 휘말려 사과했다. 이현주는 최근 자신의 SNS 일부 게시물과 관련해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제보가 접수되자 뒤늦게 '#광고' '#협찬' 등 태그를 덧붙여 논란을 모았다. 이에 29일 SNS를 통해 "광고 태그를 추가한 제품 게시물은 유튜브 광고로 별도 업로드를 할 예정이었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광고 표기를 했다"며 "이외 다른 제품은 선물로 받아 감사한 마음에 올린 것으로, 표기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씨엘, '새틀라이트414' 손잡고 해외 활동



씨엘

가수 씨엘(CL)이 영국 기반의 글로벌 에이전시 '새틀라이트414'를 통해 해외 활동에 나선다. 30일 레이베리체리는 씨엘이 새틀라이트414와 최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에이전시는 아델, 비욘세, 두아 리파 등 세계적인 팝 스타들과도 손잡고 있다. 베리체리는 "씨엘이 미국과 유럽으로도 활동 영역을 확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씨엘은 24일 솔로 정규앨범 '알파'의 첫 싱글 '스파이스'를 발표하고 활동 중이다.

카카오 vs 네이버 vs CJ ENM... 'SM 인수 3파전' 팬덤이 변수

팬 커뮤니티 '버블' 성장...가치 확대

그룹 슈퍼주니어를 비롯해 사이니, 엑소, 레드벨벳, NCT 등 케이팝 스타들을 대거 보유한 국내 최대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SM)의 향방에 가요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SM 매각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과연 SM이 어느 기업과 손잡느냐에 시선이 집중된다. 팬덤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가요계에 따르면 한때 카카오의 SM 인수설이 유력한 듯 보였지만, 최근 네

이버와 CJ ENM이 경쟁에 뛰어들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가요계에서는 SM 이수만 총괄프로듀서의 지분 18.7%(3000억원) 전량과 기타 지분 5% 등을 매각 대상으로 본다. 여기에 SM 계열사 라이크기획과 디어유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SM의 가치는 약 4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소속 가수들의 음반 판매량과 이들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 디어유의 버블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만큼 가수들의 음반·음원을 구매·소비하는, 버블을 통한 팬덤 유입이 SM 인수전의 향방을 가를 만

한 변수로 꼽힌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NCT의 유닛 NCT 드림은 정규 1집과 리패키지 앨범으로 300만장 이상 판매고를 기록했다. 또 엑소와 멤버 백현도 모두 100만장 이상을 팔아치웠다. 이른바 '메타버스'를 주요 무대로 내세운 그룹 에스파의 활약도 만만치 않다. 감염병 확산에 따라 슈퍼주니어 등 가수들은 지난해 4월 네이버와 손잡은 온라인 유료 콘서트 '비온드 라이브'를 통해 수십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SM은 네이버로부터 1000억원을 투자 받아 브이라이브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

다. 또 버블을 통해 스타와 팬들을 이어주면서 디어유는 올해 2분기에 매출 95억원, 영업이익 35억원을 기록하며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박진영의 JYP엔터테인먼트가 디어유의 지분 23.3%를 확보하며 자사가 론칭한 일본 걸그룹 니쥬의 콘텐츠도 선보이고 있다.

SM은 올해 하반기 에스파 등 다양한 가수들의 신보를 예고했다. 또 버블의 뚜렷한 성장세 속에서 가치를 더욱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M 인수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SM은 이와 관련해 7월 말 "사업 제휴 및 지분투자 관련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식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암 보험, 걱정없이 산다

수술한 적 있는 나도
치순이 넘은 나도
(40-75세 가입가능)

당뇨를 달고 사는 나도
암 걸린 적 있는 나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생명보험 협회 심의필 제 2020-02556호 (2020.09.01) (COM-2020-08-32243)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

(갱신형)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가능

보험금도 든든하게
**일시금
정액지급**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지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	---------	------------	-------------------------------

080-608-1010

암보험 가입 험드셨던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스텝가미솔 1개
상담 완료 시
무료 증정!**

[이벤트기간: 2021.01.01 ~ 2021.12.31]

- 필수 후 7일 이내 최소 2000 이상 상담 시 (가미솔 1개)
- 배송은 상담완료 후 약 6주 소요 (연 비 해당)
- 행사시간을 지남 누락 시 제외 (사전 공지)
- 본 상품은 소비자 기증 관련 혜택을 초과하지 않음
- 조기 종료 시 다른 상품으로 대체 발송됨

*가입 후 1일부터 보장(단, 소액암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 최초 1회보장(가입 2년 이내 전담 시 50% 보장)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 까지 보장(갱신 시 보화로 인상될 수 있음) 만기환급금이 없는 손수보장형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저축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거지급금을 합하여 10억원)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으로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가입 가능함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전담 상담원에게 문의해주시고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람.
AA생명보험 주식회사